

2026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문제지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정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3 | 7 | 1 | 8 | 2 | 9 | 2 | 10 | 3 | 11 | 3 | 12 | 4 | 13 | 5 | 14 | 5 | 15 | 1 | 16 | 1 | 17 | 5 | 18 | 1 | 19 | 4 | 20 | 1 | 21 | 3 | 22 | 1 | 23 | 2 | 24 | 4 | 25 | 1 | 26 | 2 | 27 | 2 | 28 | 2 | 29 | 4 | 30 | 3 | 31 | 4 | 32 | 5 | 33 | 1 | 34 | 5 | 35 | 4 | 36 | 3 | 37 | 1 | 38 | 4 | 39 | 2 | 40 | 3 | 41 | 5 | 42 | 4 | 43 | 5 | 44 | 3 | 45 | 4 |

해설

[1~3] 화법과 언어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정리하면 ‘기억’의 ‘역’은 ~군어지게 된 것입니다.’를 보면(4문단), 발표자는 발표 중에 발표 내용을 간추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풀이] ①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② 청중의 행동 변화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 ③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지 않다.
- ⑤ 최세진이라는 어문학자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출제의도] 발표 계획 파악하기

‘차차 표기’에 대해 우리말 자음자의 소릿값을 표현하기 위해 한자를 빌려 표기한 것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2문단). 하지만 그 용어의 어원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한글 자음자의 명칭은 ~반복되는 규칙을 따릅니다.’를 보면(1문단), 한글 자음자의 명칭에 일반적으로 적용된 규칙이 드러나 있다.

- ② ‘尼隱(니은), 梨乙(리을), 眉音(미음)’을 보면(3문단), ‘ㄴ, ㄹ, ㅁ’이라는 한글 자음자의 소릿값을 한자로 나타내고 있다.
- ④ 오늘날 ‘地(지)’는 당시에 구개음화가 적용되기 전이라 ‘디’로 발음했음을 알 수 있다(4문단).
- ⑤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며, ‘기역, 디귿, 시옷’을 표준 명칭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기역, 디귿, 시옷’이라는 명칭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5문단).

3. [출제의도] 차차 표기 이해하기

향찰에서 대체적으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은 ‘훈차’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은 ‘음차’로 표기하였다. <보기>를 보면, 우리말 ‘마시-’의 경우 ‘欲(마실-음)’의 뜻을 빌려(훈차) 향찰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欲’은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한 것이 아니라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한 것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됨(나-오)’는 뜻을 빌려 대명사 ‘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훈차에 해당한다.

- ② ‘水(물-수)’는 뜻을 빌려 명사 ‘물’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훈차에 해당한다.
- ③ ‘乙(새-을)’은 음을 빌려 목적격 조사 ‘을’을 나타

내고 있으므로 음차에 해당한다.

⑤ ‘多(많을-다)’는 음을 빌려 종결 어미 ‘-다’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음차에 해당한다.

[4~6] 화법

4. [출제의도] 사회자의 역할 이해하기

사회자는 네 번째 발언에서, 토의자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 의견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토의자에게 질문하여 발언의 의도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

- ② 토의자가 제시한 정보에 대해 출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 ③ 토의자의 발언 순서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④ 토의자의 상반된 의견을 절충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5. [출제의도] 토의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B]의 ‘학생 3’은 새활용 제품 제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폐현수막을 분해하는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학생 4’의 의견에 찬성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A]의 ‘학생 2’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폐현수막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할 때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 ③ [B]의 ‘학생 2’는 ‘학생 1’이 폐현수막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에 대해, 학생들에게 폐현수막의 조각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면 된다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의 ‘학생 1’은 ‘간편하다’는 자기 의견의 이점을 말하고 있고, [B]의 ‘학생 4’는 ‘보도 자료’에서 찾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⑤ [A]의 ‘학생 3’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학생 2’의 발언에 동의하고 있고, [B]의 ‘학생 1’은 직접 새활용 제품을 만들자는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가공 과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6.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의견 제시하기

[자료 1]을 활용해 새활용 제품 구매에 대한 관심율, [자료 3]을 활용해 깨끗하게 처리할 필요성을, [자료 2]를 활용해 내구성, 디자인, 적정 가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자료 1]을 활용해 학생들의 높은 구매 의사를, [자료 2]를 활용해 깔끔한 마감과 독특한 디자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자료 3]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 ② [자료 1]을 활용해 구매 의사가 없는 학생들을, [자료 2]를 활용해 자원 순환과 가격 경쟁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자료 3]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 ④ [자료 3]을 활용해 세척의 필요성을, [자료 2]를 활용해 개성 있는 디자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자료 1]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 ⑤ [자료 3]을 활용해 세척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자료 2]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폐현수막이라는 소재에 대한 편견이 새활용 제품에 대한 구매 의사를 떨어뜨렸는지는 [자료 1]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7~10] 언어

7. [출제의도] 단어의 구성 요소 분석하기

‘뉴프루다’는 어근 ‘뉴-’와 어근 ‘프루-’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은 어간 ‘뉴프루-’에 어미 ‘-다’가 붙은 것이다.

[오답풀이] ② ‘빛나다’는 어근 ‘빛-’과 어근 ‘나-’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은 어간 ‘빛나-’에 선어말 어미 ‘-았-’과 종결 어미 ‘-다’가 붙은 것이다.

③ ‘마음먹다’는 어근 ‘마음-’과 어근 ‘먹-’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은 어간 ‘마음먹-’에 연결 어미 ‘-고’가 붙은 것이다.

④ ‘되살리다’는 파생 접두사 ‘되-’, 어근 ‘살-’, 파생 접미사 ‘-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은 어간 ‘되살리-’에 연결 어미 ‘-면서’가 붙은 것이다.

⑤ ‘뺨속다’는 어근 ‘뺨-’과 어근 ‘속-’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은 어간 ‘뺨속-’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은 것이다.

8. [출제의도] 서술어의 문형 정보 추출하기

‘모두에게’와 ‘크게’는 모두 서술어 ‘들린다’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생각할 수 있는 성분이다. ‘들리다’는 ‘소리가 들린다’와 같이 주어만으로도 문장이 성립하므로 ‘들리다’의 문형 정보가 […에게]가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사실이’는 보어로 생각할 수 없는 성분이고 ‘전혀’는 생각할 수 있는 부사어이므로, ‘아니다’의 문형 정보는 […이]가 된다.

- ③ ‘부반장이’는 보어로 생각할 수 없는 성분이고 ‘친한’은 생각할 수 있는 관형어이므로, ‘되다’의 문형 정보는 […이]가 된다.
- ④ ‘성공을’은 목적어, ‘밀거름으로’는 필수적 부사어로 둘 다 생각할 수 없는 성분이므로, ‘삼다’의 문형 정보는 […을 …으로]가 된다.
- ⑤ ‘나에게’는 필수적 부사어, ‘선물을’은 목적어로, 둘 다 생각할 수 없는 성분이고, ‘멋진’은 생각할 수 있는 관형어이므로, ‘주다’의 문형 정보는 […에게 …을]이 된다.

9. [출제의도] 문장의 중의성 해소하기

‘아이들이 다 소풍에 오지 않았다.’는 ‘소풍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의미’와 ‘일부가 소풍에 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중의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내가 사랑하는 친구의, 동생을 만났다.’와 같이 첨표를 사용하면, ㉠의 의미가 된다.

- ③ ‘아이들이 소풍에 다는 오지 않았다.’와 같이 조사 ‘는’을 추가하면 ㉡의 의미가 된다.
- ④ ‘세 사람이 함께 모기 두 마리를 잡았다.’와 같이 부사어 ‘함께’라는 문장 성분을 추가하면, ㉢의 의미가 된다.
- ⑤ ‘세 사람이 모기 두 마리씩을 잡았다.’와 같이 접미사 ‘씩’을 추가하면, ㉣의 의미가 된다.

10.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의 ‘꽃잎[콘닙]’과 ‘알일[암닐]’은 뒤 음절의 첫소리에 ‘ㄴ’이 첨가되었다. ㉡의 ‘닭죽[닥죽]’은 ‘ㄷ’이 ‘ㄸ’으로 ‘뫼고[뫼:꼬]’는 ‘ㄱ’이 ‘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은 일어나지만, 첨가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의 ‘술길’은 ‘ㄱ’이 ‘ㄴ’으로, ‘있던’은 ‘ㄷ’이 ‘ㄸ’으로 바뀌고, ㉡의 ‘닭죽[닥죽]’은 ‘ㄷ’이 ‘ㄸ’으로, ‘뫼고[뫼:꼬]’는 ‘ㄱ’이 ‘ㄴ’으로 바뀌므로, ㉠과 ㉡은 모두 뒤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 ② ㉢의 ‘술길’의 ‘ㄹ’은 ‘ㅂ’으로, ‘있던’의 ‘ㅍ’은 ‘ㄷ’으로 바뀌고, ㉣의 ‘꽃잎’의 ‘ㅌ’은 ‘ㄷ’, ‘ㄹ’은 ‘ㅂ’으로, ‘알일’의 ‘ㄹ’은 ‘ㅂ’으로 바뀌므로, ㉠과 ㉡은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 ④ ㉢의 ‘닭죽’은 ‘ㄹ’의 ‘ㄹ’이, ‘뫼고’는 ‘ㄹ’의 ‘ㅂ’이 탈락하고, ㉣의 ‘닭’은 ‘ㄹ’의 ‘ㅎ’, ‘알네’는 ‘ㄹ’의 ‘ㅂ’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⑤ ㉢의 ‘꽃잎[콘닙]’과 ‘알일[암닐]’은 뒤 음절의 첫소리에 첨가된 ‘ㄴ’에 의해 앞 음절의 끝소리가 동화되는 현상(비음화)이 일어난다. ㉣의 ‘닭네[달닐]’과 ‘알네[알:레]’는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동화 현상(유음화)이 일어난다. 즉 ㉠과 ㉡에서는 한 음운이 인접하는 다른 음운을 닮아 그와 비슷

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

[11~15] 독서(사회 주제 통합)

<출전> (가) 비엔나 협약과 무역계약의 성립(제구성)
/ (나) 인코텀스와 정형 거래 조건(제구성)

개관: (가)는 무역계약의 성립과 성립 시기를 비엔나 협약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제 거래에서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비엔나 협약의 적용 범위를 밝힌 뒤, 무역계약이 청약과 승낙의 대립하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함을 설명하고 있다. 청약과 승낙의 개념과 요건을 각각 제시하고, 무역계약의 성립 시기는 도달주의에 따라 승낙의 효력이 발생할 때임을 밝히고 있다.
(나)는 국제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정형 거래 조건과 이에 관한 규칙인 인코텀스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형 거래 조건인 EXW, FOB, CIF, DDP를 들어 각 거래 조건별로 위험의 이전 시기와 비용 부담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인코텀스가 물품 가격을 산정하고 거래 조건을 선택하는 데 활용됨을 밝히고 있다.

11.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가)는 비엔나 협약을 바탕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무역계약이 성립하고,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때가 무역계약의 성립 시기를 설명하고 있다.
(나)는 무역 거래에 관한 규칙인 인코텀스를 바탕으로 한 정형 거래 조건의 대표적인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① (가)는 매매계약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나)는 정형 거래 조건들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나)는 무역 관행이 국제 규칙으로 바뀌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가)는 무역계약 성립 이후의 청약자와 피청약자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무역 거래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근거로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지 않다.

12.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승낙은 청약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동의여야 하므로, 피청약자가 조건을 변경하면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고 새로운 청약, 즉 '대응 청약'이 된다(4문단). 따라서 피청약자가 가격을 변경한 의사표시는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오답풀이] ① 무역계약은 동일한 계약도 각국의 법과 거래 관행이 서로 달라 계약의 성립 시기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1문단).
②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무역계약은 계약서가 없어도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한다(3문단).
③ 무역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매매계약이다(1문단).
⑤ 국제 거래에만 적용되는 비엔나 협약은 계약의 대상이 물품에 한정되어 용역 거래, 주식 매매는 원칙적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2문단).

1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비엔나 협약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때 '도달'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5문단). 이는 효력 발생 여부를, 상대방의 의도나 상황에 영향을 받는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인식 가능한 상태에 놓였는지와 같은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수신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전자메일을 확인하지 않

더라도, 해당 메일이 수신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메일함에 도착해 있거만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14.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DDP 부산 공장' 조건의 물품 가격은 을이 제시한 'FOB LA항' 조건의 물품 가격에 국제 운송에 따른 운임, 보험료, 통관 비용, 관세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DDP 부산 공장' 조건의 물품 가격은 'FOB LA항' 조건의 물품 가격보다 저렴하지 않다(4, 5문단).

[오답풀이] ① 청약은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청약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물품과 수량, 가격 등의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단순 문의는 청약의 유인이 된다(3문단). '을'에게 물품 가격과 거래 조건을 문의하고 있는 '갑'의 첫 번째 전자메일은, '갑'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이 된다.

② 무역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한다(3문단). 또한 무역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해당 의사표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도달한 때 성립하며,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확인하였는지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5문단). '을'이 '갑'에게 보낸 전자메일에는 핵심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거래를 희망하는 '을'의 의사가 있으므로 청약에 해당한다. ③가 '을'이 제시한 'FOB LA항' 조건이라면, 이는 청약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의이므로 승낙에 해당한다. 이때 '갑'의 의사표시가 '을'의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을'에게 도달했다면 무역계약은 성립한다.

③ FOB 조건과 CIF 조건 모두, 매도인이 선적장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는 때 물품의 인도가 일어나며,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위험이 이전된다(4문단). 따라서 ③가 '을'이 제시한 'FOB LA항'이라면 CIF 조건과 마찬가지로 본선에 A 물품을 적재한 이후 A 물품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인 '갑'에게 이전된다.

④ CIF 조건은 FOB 조건과 물품의 인도 시기는 동일하지만, 물품의 인도 이후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4문단). 또한 CIF 조건에서의 물품 가격에는 FOB 조건에서의 물품 가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될 것임을 알 수 있다(5문단). 따라서 ③가 'CIF 부산항'이라면 'FOB LA항' 조건과 달리 물품 가격에는 물품을 선박에 적재한 후 목적항인 부산항까지 '을'이 부담하는 운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15.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③ '배제하다'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하다.'의 의미이다.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미루어 두다.'는 '보류하다'의 의미이다.

16.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③ '배제하다'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하다.'의 의미이다.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미루어 두다.'는 '보류하다'의 의미이다.

[16~19] 독서(과학)

<출전> 식물호르몬 옥신의 작용과 생장 조절 원리(제구성)

개관: 이 글은 식물호르몬인 옥신을 중심으로 식물의 생장과 발달이 조절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옥신은 세포막 한쪽에 위치한 옥신 수송체 단백질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만 이동하며, 이러한 '극성 수송' 방식은 옥신을 특정 부위에 분포하게 하여 세포 생장을 유도한다. 또한 옥신은 농도에 따라 식물 기관의 생장 반응을 다르게 유도하며, 옥신에 대한 감수성 차이 때문에 동일한 옥신 농도라도 기관별로 다른 생장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옥신은 빛이나 중력과 같은 환경 자극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분포하는데, 이러한 옥신의 비대칭적인 분포는 굴광성, 굴지성과 같

은 방향성 생장의 원인이 된다. 나아가 옥신은 에틸렌의 상호 관계 속에서 잎이 분리되는 탈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16.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옥신은 식물 세포막의 한쪽에 치우쳐 위치한 옥신 수송체 단백질을 통해,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한다. '극성 수송' 방식은 중력과 무관한 수송 방식이다(1문단).

[오답풀이] ② 세포벽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삼투현상에 의해 세포 내부로 물이 유입되면, 내부 팽압을 견디는 범위 내에서 세포가 생장한다(2문단).

③ 옥신은 식물 세포막의 한쪽에 치우쳐 위치한 옥신 수송체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면서 식물의 생장과 발달을 조절한다(1문단).

④ 탈리층에서는 세포 사이의 조직 결합력이 약화되면, 코르크층이 형성되어 병원균의 식물체 침입을 방지한다(6문단).

⑤ 잎이 떨어지는 부위인 탈리층에서는 세포벽 분해 효소의 합성이 증가할수록 세포 사이의 조직 결합력이 약해진다(6문단).

17.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옥신의 농도에 따라 식물 기관별 생장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며, ㉠는 '뿌리', ㉡는 '줄기', ㉢는 '줄기'에 해당한다. 옥신의 농도가 일정 범위까지 증가할 때는 생장이 촉진되지만, 최고 생장점을 지난 이후에는 생장 촉진 정도가 낮아지다가 일정 농도에 이르러 오히려 생장이 억제될 수 있다. ㉣는 ㉡보다 생장 반응이 처음 나타나는 농도와 생장 촉진 억제도로 전환되는 농도가 모두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옥신에 대한 감수성은 ㉠가 ㉢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다(3문단).

[오답풀이] ① ㉡는 옥신의 농도가 M₁에 도달한 이후 M₂에 이르기 전까지 생장 반응 정도가 0보다 낮으므로 생장 억제가 나타난다. 하지만 ㉠는 해당 구간에서도 생장 촉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세포벽 섬유 결합이 느슨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2문단).
② ㉠는 옥신의 농도가 M₂를 초과한 구간에서 이미 생장 억제 구간이 있다. 반면에 ㉢는 같은 농도 구간에서 생장 촉진이 가능한 구간이 있으므로, 내부 팽압의 범위 안에서 세포 생장 촉진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2문단).

③ ㉡의 생장 반응이 시작된 이후 옥신 농도가 M₁에 이르지 않았다면, ㉠는 같은 구간에서 생장 반응 정도가 0 이상을 유지하므로, 생장 촉진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익스펜션 단백질의 작용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2문단).

④ ㉡는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옥신 농도에서 생장 억제 반응이 시작되며, 세포 생장 촉진 상태도 더 낮은 농도에서 끝난다(3문단).

18. [출제의도] 핵심 정보 파악하기

옥신은 세포 사이의 조직 결합 상태를 유지하는 데 관여하고, 에틸렌은 세포벽 분해 효소의 합성을 촉진한다. 잎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옥신의 생산과 수송이 감소하면 세포 사이의 조직 결합력이 약화되고, 이와 함께 탈리층은 에틸렌에 더 민감해져 세포 분리가 유도된다(6문단). 따라서 옥신이 유지하던 조직 결합력이 약화되면서, 에틸렌의 반응성이 높아져 탈리가 일어난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옥신의 농도가 높으면 탈리층 세포의 에틸렌 반응성이 낮게 유지된다. 하지만 옥신이 에틸렌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 탈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③ 탈리 과정은 옥신과 에틸렌의 농도가 모두 높아져서 나타나는 과정이 아니라, 옥신의 농도가 감소하며 탈리층이 상대적으로 에틸렌에 더 민감해져 나타

나는 현상이다.

- ④ 탈리 과정은 두 호르몬의 상호 관계 속에서 나타나므로, 옥신의 농도 변화와 관계없이 에틸렌만으로 새로 분리가 직접 유도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외부 환경의 변화로 에틸렌의 반응성이 낮게 유지된다는 내용은 지문에서 찾을 수 없고, 탈리 과정에서 탈리층은 오히려 에틸렌에 더 민감해진다.

1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가)와 (나)에 나타난 줄기와 뿌리의 굵는 현상은 옥신의 비대칭적인 분포와 그에 따른 부위별 성장 차이로 인한 것이다. (가)처럼 줄기 한쪽에 빛을 비추면 옥신이 그늘진 쪽으로 분포되고, 그 결과 줄기의 그늘진 부분에서 생장이 더 크게 일어나 줄기가 빛 쪽으로 굽는다. (나)처럼 화분을 놓았을 때, 옥신은 눌린 줄기의 아래쪽에 더 많이 분포하게 되고, 아래쪽 세포의 생장이 더 크게 일어나 위쪽으로 굽는 음의 굴지성이 나타난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빛을 감지하는 광수용체인 포토트로핀은 빛을 받은 쪽에서 활성화되어, 광원 반대 방향인 그늘진 쪽으로 옥신 수송을 유발한다. 또한 옥신이 포토트로핀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다(4문단).

② (가)에서 광원에 따라 옥신의 분포가 달라지는 것은 맞지만, 옥신의 분포가 증가한 쪽과 줄기의 굽는 방향은 동일하지 않다. 굽는 옥신의 농도가 높은 쪽과 반대 방향으로 굽는다(4문단).

③ (나)에서 줄기와 뿌리의 굽는 방향은 모두 중력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굽는 방향은 중력 자극의 방향 차이 때문이 아니라 옥신에 대한 기관별 감수성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중력 자극의 방향은 동일하다(5문단).

⑤ (가)에서 줄기의 굽는 방향은 옥신의 극성 수송이 아니라 방향성 자극에 의한 옥신의 재분포에 의해 결정된다. (나)에서 녹말체는 모두 아래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녹말체의 위치 차이가 줄기와 뿌리의 굽는 방향을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4, 5문단).

[20~23] 독서(인문)

<출전> 빌럼 플루서의 사진 철학(재구성)

개관 : 이 글은 빌럼 플루서의 사진 철학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기술 이미징인 사진을 세계를 반영한 이미지라고 여기는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기술 이미지와 전통적 이미지의 근본적인 차이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전통적 이미지는 세계를 코드화한 것으로, 그 요소들은 세계를 지시하며 이는 직관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기술 이미징 사진은 점들을 조합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 요소인 점들은 아무 의미를 갖지 않으며, 세계를 지시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사진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 이미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플루서는 카메라가 불투명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은 이를 단순히 작동하는 수행자가 되어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술 이미지 시대의 인간은 기술 이미지를 능동적으로 해석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하며, 촬영자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사진을 생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사진 철학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② 촬영자는 카메라 내부에서 사진이 생성되는 원리를 알지 못한 채, 셔터 속도나 조리개 값 등 카메라가 제공하는 범주에서 선택만 하게 되어 장치를 단순히 작동하는 '수행인'으로 전락하게 된다(4문단).

③ 플루서는 메체를 인식 주체인 인간이 대상으로서

의 세계를 일정한 방식으로 코드화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1문단).

④ 전통적 이미지는 세계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지고, 그 요소들은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건을 지시하고 있다(2문단). 이에 반해 기술 이미지는 시각적 환상을 창조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아무 의미를 갖지 않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점들은 세계를 지시하고 있지 않다(3문단).

⑤ 플루서가 컴퓨터 합성 사진을 언급한 이유는 기술 이미지가 실제 세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3문단).

21.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플루서는 사람들이 전통적 이미지를 기술 이미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미지를 전통적 이미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용한다고 보았다(2문단). 또한 장치의 불투명성(4문단)은 전통적 이미지를 기술 이미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과 관련성이 없다.

[오답풀이] ① 플루서는 사진은 카메라 장치를 통해 만들어지는 기술 이미지로서(1문단), 필름 위의 입자들이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만들어진 점들이 인화지에 투사되는 방식의 코드화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3문단). 그는 코드화를, 어떤 대상을 지시하기로 합의된 기호를 일정한 규칙 체계인 코드에 따라 배열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으므로(1문단), 사진이 장치를 통해 점들이 일정한 규칙 체계에 따라 배열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② 플루서는 전통적 이미지를 이루는 요소들이 실제 세계의 시공간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건을 지시하기 때문에, 이를 직관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2문단).

④ 플루서는 장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사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촬영자가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사진을 생산해야 함을 강조했다(5문단).

⑤ 플루서는 의사소통에서 문자가 중심적 역할을 하기 전에는 전통적 이미지가 그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1문단). 그는 전통적 이미지가 인간이 떠올린 심상을 코드화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았으므로(2문단), 문자가 의사소통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기 전에도 인간은 자신이 떠올린 심상을 코드화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22. [출제의도] 다른 관점과 비교하여 적용하기

<보기>에서 '값'은 사진이 피사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플루서는 사진을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 이미지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였다(2문단).

[오답풀이] ② 플루서는 피사체로부터 반사되는 빛 없이 점들의 조합만으로 만들 수 있는 사진(컴퓨터 합성 사진)을 언급하였으므로(3문단), 사진 속 대상이 촬영 당시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본 것이 아닐 수 없다.

③ 플루서는 사진이 시각적 환상의 창조를 위해 만들어지며, 아무 의미를 갖지 않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3문단). 따라서 그는 사진이 아무 의미를 갖지 않은 점들로 이루어진 시각적 환상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올'은 플루서의 이러한 관점과 관련이 없다.

④ 플루서는 수용자가 사진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능동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5문단), 수용자의 감상이 능동적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병'은 수용자의 감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을 뿐, 능동적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⑤ 플루서는 카메라가 제공하는 범주 안에서 선택적으로 사진이 생산된다고 보았다(4문단).

23.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⑥는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라는 의미이다.

[오답풀이] ① '무엇에 걸리거나 막히다.'라는 의미이다.

③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라는 의미이다.

④ '검사하거나 살펴보다.'라는 의미이다.

⑤ '마음에 거러끼거나 꺼리다.'라는 의미이다.

[24~27] 독서와 작문

<출전> 맨큐의 경제학(재구성)

개관 : '공유 자원'은 배제성은 없지만 결합성은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해당 재료가 빠르게 고갈되거나 쉽게 훼손되어 사회적으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자원의 개입이나, 공동체 자원의 규약 등이 필요하다.

2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나)에는 텀블러를 세척해야 하는 이유가 위생과 관련이 있다는 정보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텀블러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텀블러의 세척 유무와 환경오염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공유 자원은 남이 사용하는 만큼 내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사용되고 관리 주체가 없어 쉽게 훼손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2문단).

② 학교 복도에 놓아둔 공용 간식, 물과 공기 등의 자연 자원, 무료 주차장, 공중화장실 같은 시설물 등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1문단).

③ 공용 간식은 무료이기 때문에 '배제성'이 없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만큼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결합성'이 있기 때문에 공유 자원에 해당한다(1문단).

⑤ 일회용 컵의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텀블러와 같은 다회용 컵을 사용하자고 말하고 있다(1문단).

25. [출제의도] 읽기 방법 파악하기

(다)는 (가), (나)를 읽고 작성한 건의문이다. (가)에서 공유 자원이 초래하는 자원의 비효율성에 주목하여, (다)에서 공용 텀블러 세척기가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가)에서 공유 자원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방법 중 공동체 자원의 자치 규약을 확인하고, (다)에서 학생 자치회에서 공유 시설 사용 규약을 수립하고 관리팀을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서술하였다.

[오답풀이] ② (가)에 공유 자원의 두 가지 특성은 제시되어 있으나, 이와 다른 특성이 있는 제화는 확인할 수 없다.

③ (나)에 텀블러를 세척하는 방법은 제시되어 있으나, 해당 교육이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나)에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는 문제점은 제시되어 있으나,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다회용기 사용' 하나만 제시되어 있다.

⑤ (나)에 텀블러를 활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은 제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보상 체계를 학교 상황에 적용한 내용은 (다)에 서술되어 있지 않다.

2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일회용 컵을 쓰던 학생들도 텀블러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다)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글의 첫 부분에 건의를 받는 사람인 '교장 선생님'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문단).

③ 건의의 목적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텀블러 세척기의 설치'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1문단).
④ 텀블러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상황을 언급하며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다(3문단).
⑤ 공용 텀블러 세척기 설치가 학생들의 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을 서술하고 있다(4문단).

27. [출제의도] 작성한 글 수정하기

<보기>의 선생님은 건의를 수용해 줄 것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비유법을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텀블러 세척기 설치를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저름길’에 비유했고, ‘궁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라는 발언에서 건의 수용에 대한 바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비유법은 사용되었으나, ‘학생들의 적극적인 텀블러 사용’은 (다)의 건의 내용이 아니다.
③ 비유법은 사용되었으나, ‘텀블러 세척기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는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 달라는 바람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텀블러 세척기 설치에 대한 건의 내용은 있으나, 비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텀블러 세척기 설치를 수용해 줄 것에 대한 바람은 있으나, 비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28~30] 작문

28.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1문단에서 개광종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서식하는 개광종의 환경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독자에게 친숙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활용해 구상나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③ 1문단에서 ‘*Abies koreana*’라는 학명을 밝혀 구상나무의 원산지인 우리나라임을 설명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구상나무 고유종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시기를 ‘2013년’으로 밝히고 있다.
⑤ 2문단에서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에서 집단 고사 현상이 나타남을 언급하고 있다.

29.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은근 기후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유전자 부위에 대한 연구를 언급한 기사로, 구상나무의 집단 고사 현상(ㄱ-2)의 원인이 기후 변화로 인한 유전자의 발현임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우리 구상나무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였고(1문단), ㄱ-1에서 구상나무 숲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집단 고사가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의 고산 지대에서 나타난다고 하였고(2문단), ㄱ-2에서 여러 종의 구상나무 집단 고사율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지리산의 구상나무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흐름을 제시하였고(3문단), 한라산에도 이러한 경향이 있음을 ㄴ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사회적 해결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4문단), ㄴ에서 제주조릿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격개입의 필요성을, ㄴ에서 국가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고쳐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 1>에서 ‘구상나무 복원 사업을 위한 모금 행사’를 추가로 제시하였으므로 ㄴ은 선생님이 제시했을 의견으로 적절하다. 또, ‘이와 같은 ~큰 힘이 될 것이다.’를 마지막 문장으로 추가하였으므로 ㄷ도 선생님이 제시했을 의견으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ㄱ. 초고에도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여 예상 독자가 행동의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ㄴ. 청유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31~34] 문학(고전 소설)

<출전> 작자 미상, 「부용전」

개관: 이 작품은 효심이 지극한 주인공이 자기희생을 통해 효를 실천하고,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한 후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는 점에서 효행 설화의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난충이라는 악인의 질투와 흥개로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다는 점과 혈육(뇌성)이 주인공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 한다는 점에서 다른 효행 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과 차이점이 있다.

31.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선동은 물에 빠진 부용을 구한 후, 배를 언덕에 대고 유리병을 부용에게 주면서 요긴한 물건이라 쓸 곳이 있으니 버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오답풀이】 ① 부용은 한림의 덕택을 생각하면 죽어도 서럽지 않다고 말했다.
② 난충은 부용을 죽이기 위한 피를 우연히 얻어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③ 부용이 물에 뛰어들자 뱃사공들은 슬퍼했다.
⑤ 선동의 배에는 ‘만고 효녀 부용의 배’라고 적힌 깃발이 달려 있었다.

32. [출제의도] 배경의 기능 파악하기

선동은 부용에게 ㉠에서 벗어나 ㉡으로 가라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에서 부용을 직접 구출한 후 ㉡으로 함께 이동했다.
【오답풀이】 ① 꿈에 노인(산신령)이 나타나 부모를 ㉠에 안장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며, 땅을 완연히 그려 놓았다.
② 난충은 어주도 갈 때 부용에게 그녀가 수륙제의 재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부용은 ㉡에 빠지게 된다.
③ 선동의 배가 ㉡에 도착한 뒤, 선동은 부용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다.
④ 부용은 강 한림 댁의 몸종이 되어 받은 돈으로 장례를 치러 ㉡에 부모를 묻는다. 이후 난충이 부용을 자신의 몸종으로 데리고 가면서, 부용은 ㉡에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부용은 노인이 등장한 꿈을 뇌성에게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부용이 뇌성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 조력자인 선동이 물에 빠진 부용을 구출하는 것에서,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물결이 태산같이 일어나 난충이 탄 배를 흔적도 없이 잠기게 한 것에서, 부용을 괴롭힌 난충이 처벌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부용이 부모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 강 한림 댁의 몸종이 되는 것에서, 효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난충이 부용에게 수륙제의 재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서, 부용의 고난이 난충의 계약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34. [출제의도] 말과 의도 파악하기

[A]에서는 부용이 지나가는 기러기에게 자신의 소식을 뇌성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으며, [B]에서는 선동이 손병진에게 간사한 난충의 말 때문에 효녀인 부용을 죽이려고 했다는 과오를 지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는 자신의 선행을 부각하지 않고, [B]에서는 청자의 논리를 반박하지 않는다.
② [A]에서는 죽기 직전인 자신의 처지에 상심하고 있으나, [B]에서는 청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③ [A]에서는 물에 빠져 죽어 세상 구경을 못 하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으나, [B]에서는 청자의 억울함에 공감하지 않는다.
④ [A]에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변명하지 않으며, [B]에서는 청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지 않는다.

[35~38] 문학(현대 소설)

<출전> 전상국, 「겨울의 출구」

개관: 이 작품은 1970년대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현대시장이 들어서고, 도깨비시장이 철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도깨비시장에서 생선 장수를 해 온 아버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을 돕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근대화 과정으로 인해 소외된 도시민들에게 담긴 어려운 현실을 ‘겨울’이라고 한다면, 그 겨울을 통과할 수 있는 ‘출구’는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 가진 따뜻한 인간애임을 보여 준다.

35.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중심인물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아버지’라는 특정 인물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과거 회상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역순 행적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철거 계고장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소재가 아니라, 갈등을 심화하는 상징적 소재이다.
③ 중심인물의 내적 갈등이 반복적인 동작으로 부각되지 않는다.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초점 인물이 달라지지 않는다.

36.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현대시장은 처음 건물을 지을 때보다 임대료가 배나 올랐다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현대시장 측이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현대시장은 개장 기념으로 노래자랑 대회를 열고,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경품권과 기념품을 주었으므로, 현대시장이 손님을 끌기 위해 개장 기념행사를 열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생선을 사지 못한 사람이 빈 바구니로 돌아갈 정도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노점을 찾은 손님들은 물건을 사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아버지 곁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김 씨 그 돈 벌이 다 어따가 쌓아 놓았우?’라며 농담 삼아 비아냥거렸다는 것을 보아, 아버지 주변 장사꾼들이 아버지가 돈을 모으지 못한 것에 대해 농담 삼아 빈정거리기도 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큰 물건을 팔아 주는 단골들이 현대시장으로 물리자, ‘이거 어떻게 한다죠?’라고 하며 아버지를 붙잡고 하소연한 것으로 보아, 큰 물건을 팔아 주는 단골들이 현대시장으로 물리자, 노점상들이 아버지에게 어려움을 토로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인물의 행동 이유 추론하기

아버지가 돈을 적게 벌면서도 남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한다는 사실을 장사꾼들이 알게 되면서, 아버지가 가격을 낮춘 것이 단순히 손님을 끌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 보이는 얕은 수작이 아님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② 아버지가 판매하는 생선의 품질이 좋은 것은 손님의 말로 확인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주변 장사꾼들이 자신들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아버지가 현대시장 측의 제안을 거절하고 주변 장사꾼들의 생존권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④ 아버지가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을 끌어모은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덕분에 도깨비시장의 경기가 살아났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시장 상인들을 위해 갖은일을 도맡아 하는 아버지를 주변 장사꾼들이 본받고 싶어 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38. [출제의도] 의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손님들이 현대시장으로 물린 것은 처음 얼마간은 새 시장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고, 며칠 만에 다시 도깨비시장으로 돌아온 것은 도깨비시장에서 물건을 마음 놓고 뒤적이며 값을 깎아내리기가 좋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손님들은 도깨비시장 노점상 아낙네들에서 대접받는 기분을 느끼기도 했다. 이렇듯 손님들은 자신의 기호나 필요에 의해 다시 도깨비시장으로 돌아간 것이므로, 손님들이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 유대감을 느껴서 도깨비시장으로 돌아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아버지가 손님이 많은 시장 상인들을 도와 주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서, 아버지가 더불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시장 안의 너른 노점대가 텅텅 비어도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현대시장에 들어갈 돈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영세한 도깨비시장 상인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도깨비시장 사람들이 당장 오늘 일에 풀칠하기도 막대한 상황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도깨비시장 상인들의 삶의 애환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도깨비시장 지역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기한 안에 자진 철거하라는 철거 게고장이 시장의 점포에 닳았없이 날아온 것에서, 도깨비시장 상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재개발지구 정비 사업이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9~42] 문학(고전 갈래 복합)

<출전> (가) 이방의, 「홍리가」 / (나) 정약용, 「부암기」

개관: (가)는 작가가 반역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된 상황에서 지은 작품으로, 자신의 억울한 심정과 유배에서의 고달픈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고 유배지의 척박한 생활 환경에서 오는 고통을 토로하며, 노모에 대한 효심과 그리움, 유배에서 풀러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작가가 유배지인 단산에 머물 적에, 지인인 나공과 나는 문답의 내용을 기록한 작품이다. 삶을 떠다니는 것으로 인식하여 부질없이 웅매일 필요가 없다는 나공의 견해와, 천하 만물이 모두 떠다니는 존재이므로 떠다니는 삶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슬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작가의 견해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39.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에서는 감탄형 어미 '-로다, -도다' 등을, (나)에서는 감탄사 '아', 감탄형 어미 '-로다, -도다' 등을 통해,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정서를 부각함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 ③ (가)에는 '석방을 해 주시면', (나)에는 '가령 어떤 사람이'와 같이 모두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 ④ (가)와 (나) 모두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 않다.
 - ⑤ (가)에는 '낙엽에 가을 소리', (나)에는 '장마가 지면'에서 계절적 소재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활용해 상황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40.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③에서 화자가 개탄하고 있는 대상은 시대 상황이 아니라, 태평성대임에도 억울하게 유배 와 있는 자신의 기구한 처지이다. 즉, 시대와 개인적 상황의 괴리에서 오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 [오답풀이]** ① ㉠은 '기질이 둔하여', '속되지 못했으니'와 같이 자신의 성품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처세에 능하지 못했던 삶을 회고하고 있다.
- ② ㉡은 붓을 들었으나 북받치는 감정에 '눈물이 붓 아래로 떨어'져 글을 잊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편안히 하리라'며 노모의 안부를 바라고 있다.
 - ④ ㉢은 자신의 상황과 비교할 때 삶이 더욱 불안정한 유배객임에도 불구하고, 암자를 정성껏 가꾸는 상대방의 행위가 그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⑤ ㉣은 '공자 같은 성인'이라는 권위 있는 인물의 사례를 근거로 들며, 떠다니는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옹호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③은 화자가 자신을 유배에서 풀어줄 임금을 청송하기 위해 언급한 대상이고, ⑥은 글쓴이가 천지 만물이 떠다니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언급한 대상이다.

- [오답풀이]** ① ㉠은 화자가 공경하는 인물인 임금을 비유한 대상이지만, ⑥은 글쓴이가 동질감을 느끼는 인물을 비유한 대상이 아니다.
- ② ㉡는 화자가 현실의 한계를 인지하게 하는 대상이 아니며, ㉢도 글쓴이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 아니다.
 - ③ ㉢은 화자가 자기반성을 위해 활용한 대상이 아니며, ⑥은 글쓴이가 천지 만물이 떠다니는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활용한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언급한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결백을 알아줄 임금의 공명정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언급한 대상이고, ⑥은 사회적 통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만물의 유희성)를 설명하기 위해 언급한 대상이다.

42. [출제의도] 의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가)의 '팔만 짐의 많은 사람 억울한 줄 뉘 모르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내가 억울한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며,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기 위한 구절이다. 따라서 '팔만 짐의 많은 사람'이 자신의 무고함을 몰라주어 원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의 '선생이 홀로 떠다니는 것을 ~ 잘못 된 일이 아님니까'에는 나공이 떠다니는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글쓴이의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 [오답풀이]** ① (가)의 해당 구절에는 유배지에서 화자가 겪는 먹거리의 부족함과 궁핍한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 ② (나)의 암자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나공의 의문과 그에 대한 글쓴이의 대답에서 떠다니는 삶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난다.
 - ③ (가)에서 화자가 자신을 '고기 그물에 걸린 기러기'에 비유하는 데서 억울하고 답답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나)에서 다양한 자연물을 '나와 함께 떠다니는 것'이라고 한 데서 자신을 떠다니는 만물의 일부로 여기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⑤ (가)의 해당 구절에서는 임금의 은혜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고, (나)의 해당 구절에서는 정처 없는 삶을 비극이 아닌 세상의 보편적 이치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드러난다.

[43~45] 문학(현대 시)

<출전> (가) 최영철, 「일광욕하는 가구」 / (나) 손택수, 「저문 들판이 새들을 불러모든다」

개관: (가)는 물에 젖은 가구들이 햇볕을 받아 마르는 모습을 통해 생명력과 연민 의식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나)는 추수가 끝난 들판에 떨어진 벼들의 의미에 주목하여, 힘든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공존의 미덕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4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가구를 의인화하여 (나)는 나그네새를 짓가락질하는 존재로, 벼가치를 땅을 일구는 존재로 의인화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② (나)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가)의 '~이 ~을/를 ~고 있다', (나)의 '~은 ~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에도 있었구나'에서, 두 작품 모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가)에서는 '눅눅해진 피부', (나)에서는 '차다찬 저 하늘'을 통해 두 작품 모두 추각적 이미지를 쓰였음을 알 수 있다.

44.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③을 활용하여, 농부가 벼들을 일부러 새들의 먹이로 남겨 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농부가 수확 후에 느낀 허전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오답풀이]** ① ㉠을 활용하여, 가구들의 어깨가 물라보게 아ыл 정도로 고된 시간을 보내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을 활용하여, 가구가 몸을 털 때마다 떨어지는 먼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가난의 흔적이 떨어져 나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을 활용하여, 가장 높이 날던 새들도 먹이가 부족하여 들판에 내려 올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을 활용하여, 가을 들판에 떨어진 벼들의 모습이 마치 저문 하늘에 드문드문 빛나는 별들의 모습과 유사함을 드러내고 있다.

45. [출제의도] 의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는 농부들이 벼들을 떨켜 놓는 행위가 공존의 미덕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그네새가 부리를 바빠 움직이는 행위는 다른 존재의 생존을 배려하는 공존의 미덕을 위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 [오답풀이]** ① 물에 젖은 가구들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② 가구들이 추수라는 재난을 입어 상처를 받은 상태를 나타낸다.
 - ③ 가을 추수가 끝나 새들이 더 이상 들판에서 먹이를 찾기 어려운 궁핍한 현실을 나타낸다.
 - ⑤ (가)에서는 상처 입은 존재들이 서로를 보듬으려는 행동을 통해, (나)에서는 궁핍한 현실 속에서도 새들의 생존을 배려하는 농부의 마음을 통해, 생(生)의 긍정적 가치를 드러낸다.